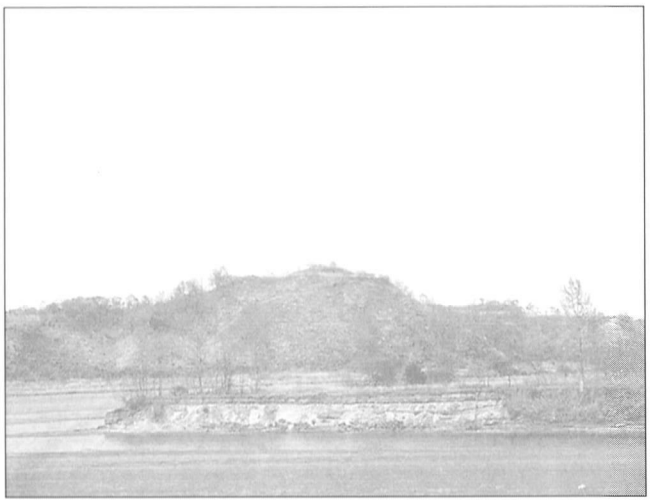
군 사 유 적

1. 德津山城

● 소재지 : 군내면 정자리

『대오지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고적조사보고』, 등에 기록이 나온다. 종합해 보면 "현의 남쪽 15리의 강변에 위치한다. 초축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석축이 파괴된 지 오래이다. 광해군 때 수축했으나 그후 다시 폐지되었다." 는 내용이다. 또한 그 위치를 임진강 하류 서북쪽 약 10리 지점에 있는 덕진산으로 추정하였는데 현재는 군내면 정자리 산 1, 2번지이다. 이곳은 지형상 임진강이 북쪽으로 굽이쳐 흘러서 단애를 이루는 고지상이므로 강의 남쪽을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이다.



〈임진강 남안에서 본 덕진산성 전경〉

한편 최근에 육군사관학교 내의 육군박물관에 의해 임진강 군사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임진강 변의 여러 군사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서 덕진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성은 내성과 외성이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내성은 수내나루 쪽으로 뻗은 능선과 산봉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포곡식성이고 외성은 내성과 연결되어 초평도 방향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다. 외성은 내성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길이 1㎞, 높이 4m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다. 유물로는 와편과 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삼국시대까지 연대가 올라가는 와편이 보인다.

이 지역은 초평도가 있어 강폭이 좁아지므로 비교적 도하가 용이한 곳으로서 북상세력을 저지하고자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구려 계통의 와편이 내성의 성벽 기단부에서 다수 발견됨으로 보아 고구려에 의해 4~5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이후 이 성은 조선 광해군 때 다시 주목되어 외성을 축조하게 되었다. 이는 임진왜란시 왜군의 임진강 도하를 막지 못한 데서 교훈을 얻어 임진진

의 보수와 함께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七重城

● 소재지 : 적성면 구읍리

칠중성은 적성면 구읍리에 있는 重城山에 자리잡고 있다. 중성산은 일명 城山이라고도 하는데, 동봉과 서봉으로 봉우리가 나누어진다. 성벽의 무너진 흔적이 동봉을 중심으로 보이고 있어 테뫼식 석축산성임을 알 수 있다. 이 구조를 내성으로 보고 다시 서봉까지 연결하여 외성을 쌓은 이중 축성의 백제계 산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심하게 파괴돼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

〈무너져 내린 산성의 석축〉

칠중성이 자리잡고 있는 중성산은 비록 해발고도 149m에 불과한 낮은 야산이지만 서쪽으로는 자장리, 동쪽으로는 율포리, 북쪽으로는 주월리가 위치하고 있어 적성에서 적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여울을 만들며 흐르는 임진강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고 주변이 낮은 평야지대여서 시야가 좋다. 또한 송악산, 감악산, 파평산이 바로 눈에 잡히는 훌륭한 입지이기 때문에 국경분쟁이 심하던 삼국시대에는 중요한 전략요충지였다.' 이 지역이 처음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1세기경인 백제 온조왕 18년인데, 이때 백제는 낙랑·말갈과 국경문제로 七重河(임진강)에서 충돌하였다. 그 이후 7세기에 이르러 고구려와 신라 간의 국경분쟁 기사에 다시 이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 명칭은 칠중성이다. 즉 초기 백제의 북방경계로 難隱別이라 불리던 임진강 및 한강 유역은 고구려가 하남위례성을 함락한 시기인 5세기 후반 이후로는 七重城 혹은 娘臂城으로서 고구려에 속하다가 진흥왕의 북진정책 이후인 7세기 후반부터 칠중성이란 명칭으로 신라에 귀속된 것이다. 그 이후로도 신라와 고구려는 이 성을 놓고 여러 번의 전투를 벌이게 되며 삼국통일 이후 신라의 對唐戰이 이곳에서 마무리되기 한다.

칠중성의 축성 시기에 대하여는 백제의 하남위례성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이미 조사된 바처럼 축성 방법과 주변 성곽의 배치에서 백제의 특성이 나타날 뿐 아니라,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에서도 삼국시대로 보이는 와편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정밀조사에서 나온 결론은 아니므로 앞으로의 조사에서 분명해지리라 본다.

전략적인 중요성이 사라진 후, 칠중성은 폐성이 되었고, 『대동지지』·『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적성현지』 등에 현의 서쪽 3리, 남쪽 2리에 위치한다는 등의 기록만이 남게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칠중성의 또다른 이름인 吐呑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서로간에 뺏고 뺏긴다는 의미에서 생긴 것 같다. 또한 주위가 2,256척에 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이 있음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七重' 혹은 '重城'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임진강의 옛 명칭인 七重河에 인접해 있는 성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칠중성을 母城으로 하여 주변에 子城을 6개 쌓아 칠중성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후자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칠중성 부근에서 주월리성, 가월리토성, 범바위 토성 등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후고구려의 궁예가 패망할 당시 이곳 중성산에 성을 쌓고 싸웠다는 전설도 있다.

삼국통일 이후로 전략적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 칠중성은 해방 이후 현대사에서 다시 전략적인 요충지로 부상되어 한국전쟁 당시에도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당시 중공군 3만여 명이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올 때 영국군 1개 대대가 3일 동안 중성산에서 버티었고 중성산을 빼앗긴 뒤에도 설마리계곡에서 3일을 교전하여 중공군의 서울진입을 지연시켰던 것이다.

현재 성은 여러 개의 참호와 헬기장 등을 갖춘 현대적인 요새로 재무장되었기 때문에 옛 칠중성의 유적은 거의 파괴되어 성벽을 이루던 석재들은 참호 구축에 사용되었으며 동남쪽의 남은 석축들은 무너져내려 원형을 잃고 있다.

〈최근 발굴된 칠중성 전경〉

최근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칠중성 복원에 따른 지표사료조사가 이루어졌다.

3. 六溪土城

● 소재지 : 적성면 주월리

적성면 주월리 육계동 산99번지에 위치하는 토축의 방형 평지성으로 임진강이 크게 우회하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튀어나간 곳에 자리잡고 있어 동쪽으로 여울목을 건너오는 적을 북쪽에 있는 칠중성과 연합해 격퇴하고 서쪽의 돌다리에서 파주로 쳐들어 온 적을 금파리의 토성과 함께 합쳐 격퇴하던 제1선의 보루였다. 강변 저지대에 인공적으로 축조하여 강변 쪽으로 높이 3m · 길이 700m 정도의 토벽을 쌓았다.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변 쪽으로 내성이 편향되어 위치하고 동쪽과 남쪽으로 외성이 넓게 둘러싸고 있으며 외성에는 동 · 서 · 남문의 흔적이 있다. 『적성현지』, 『대동지지』, 『여지도서』 등에서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현의 서쪽 7리에 있으며 주위가 7,692척에 달하고 장단의 호로탄고루와 더불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고 한다.

『적성현지』에 의하면 "성 내부에는 사람들이 옛 궁궐터 혹은 고려조의 이궁터라고 하는 건물초석이 있으며, 속전에 의하면 당 장수 설인귀가 이곳에서 출생하였다고 하나 『唐書』에 의하면 설인귀는 용문 사람으로 여기에 그 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術人 李毅信은 성 옆의 백옥봉 아래에 집을 짓고 살았으니 그 집자리가 남아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성의 初築 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읍지의 설인귀 관련기사를 믿지 않는다 하여도 설인귀가 삼국통일과 관련있는 인물임을 고려해 볼 때, 그가 태어났을 때라면 삼국통일 이전이 되므로, 축성시기를 삼국시대의 어느 때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성의 축조방법이, 지금은 거의 훼손이 되었으나, 풍납리 토성, 왕궁리 토성과 같이 백제계의 토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평지에 위치한 판축기법의 토성이라는 점도 그런 짐작을 뒷받침해 준다.

이 성의 동남쪽에 위치한 칠중성과 연관지어 모성과 자성의 관계로 보려는 견해도 있음을 고려해 보면 백제계 토성이라는 짐작이 더욱 굳어진다. 삼국시대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방어용 성으로 이용되었음은 거란족 침입 때에 격전을 치룬 곳이라는 전설로도 알 수 있다. 성 내부는 대부분 경작지화되어 있고 군부대가 들어서 있어서 성의 보존상태는 매우 좋지 못하다..앞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된다면 토성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이곳의 지형상 특징으로 보아 금파리 구석기 유적지에 이어 파주지역에서 또다른 구석기 유적지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